

<2014년 8월 6일 수요말씀> **중요** (각 교회 교역자가 잘 준비하여 전할 것)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기가 안 하니, 실감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본 문 시편 18장 25-26절
출애굽기 20장 6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번 주에는 ‘**많이 행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주일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기가 안 하니, 실감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핵심 부분

★ 기도 중에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 성자도 인간을 구원하면서, 인간이 책임을 못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은 했어도 ‘포기’는 안 했다.

‘포기’ 하지 않았어도 그 영이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포기’ 하면, 그 영은 <사망의 영>이 된다.” 하셨습니다.

공기가 있어도 누가 대신 숨을 쉬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숨을 쉬는 책임’을 해야 존재하고, 음식이 있어도 누가 대신 먹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먹는 책임’을 해야 존재합니다.

<구원과 휴거>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주고, ‘성삼위’가 역사하시고,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가 왔어도 결국은 ‘인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변화되어 구원받고 휴거됩니다.

<인간>이 ‘자기 할 일’과 ‘자기 책임’을 못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포기’하고 ‘할 일’을 안 해 줘서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쉽게 비유로 말해 주겠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하나님께 오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그 길은 <구원길>입니다. 그 길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길로 오지 않든지, 오다가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 버리면, 그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끝>

섭리사에서도 아무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잘해 주시고, 성자가 그 육을 통해 잘해 주셔도 ‘본인’이 서운함과 섭섭함을 타고 <세상 사

랑의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인’ 이 안 하니, 사망으로 간 것입니다.

성자가 못 해 줘서 사망으로 가는 자는 없습니다. 사망으로 갈 자는 아무리 잘해 줘도 ‘본인’ 이 저버리고 사망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기하고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 썩은 행위를 하며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로 썩고 썩어 더 이상 살 수 있는 땅이 못 되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베어 불 지르듯이, 쓰레기는 불 질러 태우듯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없앤 것입니다.

섭리사에서도 ‘성자’ 가 못 해 주고 ‘사명자’ 가 못 해 줘서 <구원>을 못 받고 <휴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이 못 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사람이 <생명권>에 있을 때가 가치 있고 귀하지, 마음과 행위가 썩어서 <사망권>에 가 있는 자는 귀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귀하고 멋진 자동차’ 가 있는데, 사고가 나서 폐차하게 됐을 때는 더 이상 귀하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인삼’ 도 썩지 않았을 때가 귀합니다. 썩으면, 사용하지 못하니 그 때는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섭리 인생’ 도 <섭리 생명권>에 있을 때가 귀하지, 세상으로 가서 썩으면 귀하다가도 귀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습니다. <끝>

‘썩은 것’ 은 10000개가 있어도, 아무리 전에 귀한 취급을 받았어도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썩지 않은 것 한 개’ 가 더 귀합니다.

아무리 ‘귀한 왕’ 이라도 죽어서 썩으면, 땅에 묻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여자’ 도 타락하면 ‘하와’ 같이 되고, ‘귀한 남자’ 도 타락하면 ‘아담’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를 귀히 여기시다가 타락하니 책망하시고, 그 후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후 4000년이 지나도록 아담과 하와를 육으로도 영으로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자’ 를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온전한 자, 장성한 자’ ,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를 세우셨습니다.

<섭리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무너진 ‘사랑의 뜻’ 을 회복하고 복직하는 역사입니다. 고로 타락하면, 안 부르십니다. 만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행하십니다. 하지만 타락하지 않았을 때만 하겠습니까?

<타락>은 ‘이성 죄’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각종 죄들’ 도 <하나의 타락>입니다.

타락하면, ‘타락의 길’ 로 갑니다.

그동안 잘하다가 한순간 실수하면, 그 순간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매일 운전을 잘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 실수하면, 그 순간 사고가 나서 ‘고통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매일’ 운전을 잘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매일’ 잘해야 됩니다.

건강도 ‘매일’ 잘 관리해야 건강합니다.
늘 잘하다가 관리 안 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매일 관리’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의로운 자’ 취급을 받습니다.

믿고, ‘성자가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휴거>됩니다.

‘믿는 자’는 많아도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지, 하나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한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과 <휴거>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섭리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구원받고 휴거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성으로 타락하고 한 남자와 살면서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고 싶어요.” 했습니다.

성자에게 말씀드리니,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의 길로 가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자기가 사망길로 가면서 생명길로 가게 해 달라고 하는구나.” 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자기가 ‘다른 길’로 가면서 “나와 함께해 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자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서 성자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와 함께할 수 없고, 그를 통해서는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중심,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면서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도 개인, 민족, 세계 모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잘해 줘야 하는 부분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의 뜻대로 행한 자’와 ‘못 행한 자’는 딴 세상에서 삽니다.

<육신>은 같은 자리에서 살아도 <훈과 영>은 육이 행한 대로 휴거 100선, 200선, 300선으로 각각 변화되어 각각 다른 세상, 다른 차원에서 삽니다. <끝>

<육>은 ‘육’끼리 통하고, <훈>은 ‘훈’끼리 통하고, <영>은 ‘영’끼리 통하면서 보고 삽니다. 차원이 다르면, 다른 데서 삽니다.

(* 중요한 말씀, 다시 쪽~ 화면을 보면서 듣겠습니다.) <영상5>

성자도 주도 같은 급이 되어 같은 차원에 있어야 순간이라도 만나고, 보고, 그가 하는 말씀을 들으며 통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육계>도 차원대로 다른 세계입니다.

- ‘몇천만 원짜리 차’와 ‘3억 원짜리 차’는 차원이 다릅니다.
- 또 ‘차를 타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 또 값대로 ‘고속버스를 타는 것’과 ‘자가용을 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상 육계>는 이 세상에서 한계를 놓고 차원이 나뉘기에 그 격차가 덜한 것입니다.

* <영계>는 차원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영계>는 ‘들어가는 문’ 부터가 다릅니다.

‘혼적 세계의 문’ 이 다르고, ‘영적 세계의 문’ 이 다릅니다.

또한 각 차원마다 일점일획이라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로 <영계>에서는 차원이 갈리면, 거의 못 봅니다.

‘같은 급, 같은 차원’ 에 가야 매일 보고 같이 살게 됩니다.

<황금성 급>에 가야 ‘사랑의 대상체’ 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매일 보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같이 살게 됩니다.

다른 급은 같은 천국이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엄격하게 차원이 구분되어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끝>

성자와 한자리에서 같이 살고 싶으면, 절대 성자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성자를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산 대로 차원이 결정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매일 기도하고 <혼적 차원의 세계>에 가 보세요.

매일 기도하고, <꿈>을 통해 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교육만 하고 가르치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배운 대로 행해 보고, 확신을 가지고 성자와 같이 사는 때입니다.

‘육’이 있듯이 ‘혼’이 있으니, <꿈>으로 ‘혼 영계’에 가서 보기 바랍니다.

<혼 영계>도 ‘차원의 세계’입니다. ‘자기 육’이 열심히 하면 ‘자기 혼’이 높은 차원에 있고, ‘자기 육’이 열심히 안 하고 보통으로 하면 ‘자기 혼’도 그 정도 급의 차원에 있습니다.

‘자기 육’이 행한 대로 ‘혼의 차원’도 완전히 다릅니다.

<새벽>도 어느 시간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강도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선생이 새벽에 제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하니, 영계에 들어갔어도 다른 길로 들어갔습니다.

제시간에 기도하고 영계에 가니,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받아췄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를 잘해 줘야 하는 부분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작년에 선생이 <6개월째 절식 기도>를 할 때, 최고로 조건을 세운 후에 <혼의 세계>에 갔습니다.

그때 내 혼이 ‘지구가 창조될 때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구 세상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여기저기에 화산이 터져서 뜨거운 열기가 후끈거렸습니다.

어떤 곳은 화산이 터진 후에 바위가 용광로에 녹았다가 다 식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내 혼이 그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마치 연장을 만들 때 먼저 쇠를 녹여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듯이, 하나님도 먼저 화산이 폭발하게 하여 지구를 녹인 후에 ‘산’도 원하는 대로 만들고, ‘평지’도 원하는 대로 만드셨구나. 또 ‘바위’도 만들고, ‘굴’도 만들고, 또 화산재로 ‘굴의 구멍’을 막기도 하셨구나.’ 했습니다.

작은 산 밑에 한 좁은 구멍이 있기에 흙을 파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넓은 바위 굴’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양쪽으로 갈려 구멍이 나 있었고, 양쪽 굴에 음식이 있어서 먹으면서 “야~ 이곳에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와서 먹고 즐기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때 내 혼이 ‘지구가 형성되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끝>

‘내 육’이 더욱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차원 높게 행하니, ‘내 혼’이 그 차원까지 간 것입니다.

만일 ‘영’으로 봤다면, 지구가 빨간 불덩어리로 있을 때 봤을 것입니다.

‘영’으로 안 봤어도 ‘지구는 불덩이였구나! 지구가 식으면서 지구의 여러 가지가 형성되고, 거기에 비가 오게 하고 햇빛이 비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구를 만드셨구나. 수수억 년이 가니 식물도 났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같이 ‘혼’으로 봐야 알지, ‘육’으로는 수십억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지구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혼계를 나와서 ‘내 혼이 다닌 곳이 <육계의 어느 지점>일까? 지금도 그 형태대로 <풀>도 나고 <굴>도 있을 것인데...’ 하고, 육이 생각으로 이 산, 저 산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년이 되었기에 지각 변동도 있었을 것이고, 깎이기도 했을 것이니, 어디에 그런 굴이 있는지 찾기가 어렵고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수석 돌’도 보았는데 ‘지금도 그 돌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선생의 혼이 꿈에서 본 대로 육계에서 찾았을까요? (답은 나중에)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

<육의 세계>가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100억만 배 더 허무하지 않고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요?

네! 정확하고 확실하게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꿈에 불과한 세계가 아니냐?” 하고 의심이 되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보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육’이 사니 몸짜 붙여서 살피면서 보면 의심이 없어지듯, <영의 세계>도 ‘혼과 영’이 사니 확인하면 확실합니다.

★ 같이 사는 사람도 별 관심 없이 살면, ‘같이 살고 있는가?’ 하게 됩니다.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같이 먹고, 매일 심정 일체 되어서 살면, ‘같이 살고 있는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 말씀도 건성으로 듣고, 매일 기도도 안 하고, 매일 육에 속해서 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정말 계시나? 정말 내 옆에 계시나? 정말 구원자가 맞나?’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매일 부르면서 대화하고, 수시로 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살아 보세요. 왜 ‘있나? 없나?’ 해지겠습니까?

★ <휴거>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휴거의 삶’ 을 살지 않으니 ‘정말 휴거 때인가? 안 믿겨져.’ 하는 것입니다. 매일 ‘휴거의 삶’ 을 살면, 왜 휴거가 의심되겠습니까?

★ 자기가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냥 놔두면 ‘보화가 있나? 없나? 꿈에 본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매일 파내 보세요. 꿈같겠습니까?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앙>도 그러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성자와 대화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현실감이 있고 확실합니다.

★ 신앙이 죽어 시체가 되어서 ‘사망’ 으로 가고 ‘세상’ 으로 나간 자들은 **자기가 안 하다가 나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 타락하면서 즐기거나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고, 건성으로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하니, ‘사망’ 으로 ‘세상’ 으로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는 교회에 잘 다녔는데, 왜 잘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알고 보면 숨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사니, 본인들이 못 견디고 나간 것입니다. 고로 그런 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잘하다가 못 하는 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말고, 매일 운전을 잘하듯 매일 성자와 일체 되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초점>을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두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에게 두고 살아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행위대로 되니,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제대로 할 때만 됩니다.
100% 안 하면 그는 안 된 것입니다.

★ 선생이 작년에 <6개월 절식 기도>를 하고, 그 터전 위에 안 내려오고 더 오르니,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6개월 절식 기도 조건>이 끝나고 그냥 내려왔다면, 그 주관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거기서 더 차원 높여 오르니 ‘7수’가 보여 <7개월 절식 기도 조건>을 세웠습니다. ‘7수, 완전수’에 도달했습니다.

그 터전 위에 지금까지 더 차원을 높이며 행하니, 또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를수록 딴 세상입니다. 오르는 대로 차원이 높아집니다.

<표상의 조건>은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고로 표상이 조건을 세웠으니, 전체 각자가 조건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행하면, 하는 대로 차원 높여 오르게 됩니다.

★ 자기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며 살고 있어도, 현실을 살고 있어도 방에서 잠만 자고 행하지 않으면 ‘세상이 있는가?’ 하게 됩니다. 자꾸 몸으로 행하면서 부딪혀야 되는데, 안 하니 이 세상에서 살아도 현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영계>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매일 역사하십니다. <구원자>가 와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휴거>도 실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으니 안 믿어지고, 현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영계>도 <혼계>도 못 보니 ‘정말 있나? 없는 거 아니야?’ 하며 의심하는 것입니다.

- ‘행하는 자’만 현실감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먹고 입고 누리면서 삽니다.

- ‘행하는 자’는 실제로 <영계>에 가고 <혼계>에 가고, <성자>를 상징으로 만나고, 먹고 입고 누리면서 삽니다.

- ‘행하지 않는 자’는 <영계>도 <혼계>도 <휴거>도 하나의 비유로 듣고, 이야기로 듣고, 관념 속에서 삽니다.

- ‘행하는 자’는 실제로 행하면서 실체 속에서 사니, 생명력이 있어서 기뻐하며 누리며 삽니다.

★ 주가 구원하고 싶은 자에게는 그에게 ‘원하는 것’ 을 보여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원치 않는 것’ 을 보여 주어 제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말씀 마무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여러분의 휴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자의 육도 <여러분의 휴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만 100% 믿고,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100% 행하는 자’ 란, ‘많이 행하는 자’ 를 말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행하고, <구원자>도 많이 믿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많이 믿고 많이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많이 행하는 자가 ‘100% 행하는 자’ 입니다.

그러면 육과 혼과 영이 표가 나게 빨리 변화되고, <휴거 300선>의 표적을 이루어 ‘휴거의 문제’ 가 해결됩니다.

<휴거 때>는 ‘휴거’ 로 ‘구원’ 받는다고 했지요?

‘나는 자신이 없으니, <시대 신부 구원>이나 받아야겠다.’ 하며 포기하지 말아요. 어떻게 <휴거 때>를 만나서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여러분의 휴거>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시고, 선생도 <여러분의 휴거>를 놓고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밤낮 기도하고, 조건을 세워 주고, 계속 말씀을 보내면서 <휴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휴거를 이룰 당사자’ 가 마음 약해지면 되겠어요?

현실에 처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좌절

할 때에는 ‘그동안 자기가 해 왔던 것, 따랐던 것, 믿어 왔던 것, 앞으로 행하여 얻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힘으로 이기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면 된다! 하는 만큼 잘된다!’

많이 행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된다.

행한 것은 그대로 내가 다 받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만 하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휴거>로 ‘구원’도 완성하고,

‘신앙의 목적’도 완성하고,

‘창조 목적’도 완성하기 바랍니다.

<휴거 때>에는 ‘영이 휴거되는 것’이 곧 ‘구원’이니 마음 나약해지지 말고, ① 성자가 많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그 힘을 받아서 행하고, ② 자기 것이 없으면 성자와 선생의 것을 빌려서 그 힘으로 행하고, ③ 휴거 말씀을 부어 주면서 휴거에 초점을 맞춰 역사가 진행될 때 그 힘으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